윤리와 사상 정답

1	①	2	③	3	⑤	4	③	5	①
6	⑤	7	③	8	③	9	②	10	④
11	③	12	④	13	⑤	14	①	15	②
16	②	17	④	18	④	19	⑤	20	②

해설

1. [출제의도] 공자의 사상 이해하기

그림의 가상 대화에서 스승은 공자이다. 그는 어진 사람이란 진실한 마음으로 인(仁)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서고 싶으면 남을 세워 주고 자기가 이루고 싶으면 남을 이루어 주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남을 헤아려야 한다는 서(恕)를 강조하였다.

2. [출제의도] 칸트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그는 자연적 경향성에서 벗어나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라고 보았다. 또한 도덕 법칙은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실천 법칙이고 실천 이성이 부과하는 무조건적 명령으로서,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3. [출제의도] 한국 불교 사상 이해하기

갑은 지눌, 을은 의천이다. 지눌은 진리를 단박에 깨친 뒤에도 나쁜 습기(習氣)를 점진적으로 소멸시켜 나가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의천은 내적인 수행과 외적인 수행을 병행하여 깨달음에 도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모두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하였고, 경전 공부와 선(禪) 수행의 병행을 중시하였다.

4. [출제의도]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사상 비교하기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자유 의지를 남용하여 죄악을 저지른다고 보았다.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주장하며, 신의 존재를 이성에 의해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모두 인간의 완전한 행복이 신앙을 통해 신에게 귀의하고, 신의 은총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5. [출제의도] 동학과 동도서기론 비교하기

갑은 동학 사상가 최제우, 을은 동도서기론을 주장한 신기선이다. 동학은 성리학적 신분 질서와 서학을 반대하였다. 동도서기론은 유교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서양의 우수한 과학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 [출제의도]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비교하기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주지주의의 입장에서 무지가 악행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선을 알면서도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모두 행복을 위해 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7. [출제의도]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사상 비교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프로타고라스이다. 그는 도덕이나 관습을 상대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보편적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성에 의한 영혼의 깨달음보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처세술을 중시하였다.

8. [출제의도] 석가모니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연기설(緣起說)을 주장하였다. 그는 세상에 불변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간이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하였다.

9. [출제의도] 맹자의 사상 이해하기

그림의 학생이 탐구하고 있는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기 때문에, 군주가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왕도(王道) 정치를 주장하였다. 그런데 군주가 인의를 해쳐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교체될 수 있다고 보았다.

10.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 사상 비교하기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이황은 사단은 이가 발하고 이것을 기가 따른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것을 이가 탄 것이라고 보았다. 이이는 발하는 것은 오직 기이고 이는 발하는 까닭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이라고 보았다.

11. [출제의도] 흄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흄이다. 흄은 선악의 구별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감정은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이성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도덕성의 기초를 공감이라고 보고, 선악은 사회적 시인과 부인의 감정에 의해 구별된다고 보았다.

12. [출제의도] 벤담과 밀 사상 비교하기

갑은 벤담, 을은 밀이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그는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고 쾌락의 양적인 차이를 중시하였다. 밀은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여러 가지 쾌락을 경험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선호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모두 행위의 궁극적 목적을 쾌락이라고 보고,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13. [출제의도] 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그는 인간의 그릇된 방식과 가치관에서 사회 혼란이 비롯되었다고 보고,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에서 벗어나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살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14. [출제의도] 플라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그는 선의 이데아에 대한 참된 앎을 인식한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절제의 덕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각자에게 걸맞은 덕을 갖추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에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15. [출제의도] 순자와 정약용 사상 비교하기

갑은 순자, 을은 정약용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인위적 노력에 의해 선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부여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약용은 인간만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영지의 기호를 타고났으며, 사단(四端)을 확충함으로써 사덕(四德)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6.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 사상 비교하기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인간의 본성[性]을 하늘이 부여한 이치[理]라고 보고 사물의 이치를 탐구한 후 도덕적 실천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왕수인은 인간의 마음[心]이 곧 하늘의 이치라고 보고 천리로서의 양지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발휘하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모두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극복할 것을 강조하였다.

17. [출제의도] 장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그는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만물이 평등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상대적 인식과 외물에 얽매이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절대 자유의 경지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18. [출제의도] 스피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그림의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그는 신은 곧 자연이며, 유일한 실체라고 보았다. 또한 인간이 이성적 관조를 통해 우주의 인과 질서를 인식하고, 다른 존재자들과 진정한 유대를 형성할 때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9. [출제의도] 원효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원효이다. 그는 모든 존재와 현상의 근원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처의 마음인 일심(一心)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다양한 종파의 대립과 갈등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통합할 것을 강조하였다.

20. [출제의도]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 비교하기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스토아학파 에픽테토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최소한으로 충족하여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에 이를 것을 주장하였다. 에픽테토스는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즉 이성을 따름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요되지 않는 부동심(不動心)의 경지에 이를 것을 주장하였다.